



[시험 후기]

## 제4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김 0 0

(00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 I. 들어가며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제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지 이제 2주 정도가 지난 즈음입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변호사시험 준비기간과 본 시험기간은 물리학적인 진리에 따라 결국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하고 충실한 수험생활을 해냈는지를 반추해보면 겸연쩍어질 뿐이지만, 어리숙한 서생의 하찮은 회고라도 시험이 주는 부담과 그로 인한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동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나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야 겨우 법학 공부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제 마음으로는 이 줄고가 이미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안정적으로 수험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상위권 학생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본인의 부족함을 체감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효과적인 처세술로 읽히기를 희망합니다.

## II. 실전준비와 실전

### 1. 실전을 위한 준비

제가 이 지면을 빌어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3년간의 로스쿨 생활 전체를 가이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아마도 로스쿨에 진학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각자 그동안 중·고교 생활과 대학생활을 거치면서 정립 된 나름의 공부 방법론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본격적으로 매진하는 마지막 3학년 기간을 중심으로 특히 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준비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적어보겠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위하여 생활상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아마도 1년간의 준비기간과 총 5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본 시험기간을 견딜 체력을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최근 인기 있었던 웹툰 ‘미생’의 명대사를 빌어 그러한 체력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보자면, “네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귀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유로써가 아니라 문언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수험기간과 본 시험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수많은 변수와 그로 인한 불안감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수험생 모두가 실수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의 존재만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필요 이상으로 긴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아마도 물리적인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발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향과 경험에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본 시험기간 동안의 생활 주기를 몸에 익히는 기간은 저마다의 기질과 품성에 맞추어 이루어 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소풍 전 날 한 번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없는 분은 편한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면 족할 것이고, 늘 상 지각하곤 하셨던 분들은 좀 더 긴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마다 체력을 준비하는 방법 또한 각자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신체의 긴장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익숙한 분은 그러한 방법에 따르면 될 것이고, 영양제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보셨던 분들은 그런 방법을 자연스럽게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시험 직전이 되면 주변에서 시험기간 중 떨어지는 체력을 보충하고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품에 관한 정보가 다양하게 공유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약품을 써본 적은 없지만 큰 도움을 받았다는 수험생들 또한 많았으므로 각자의 선택에 따라 방법을 취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시험 직전이 되어서야 저런 약품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미리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단순히 그간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서서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생활상의 준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2. 실 전

### (1) 선택형

세 번의 모의시험을 통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실전에서의 긴장감으로 인하여 본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선택형 시험을 푸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적으로 모의시험을 치루는 동안 한 번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지만, 실전에서는 답안지 마킹을 틀리는 등 촉박한 시간으로 인한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2) 사례형

아마도 변호사시험 준비기간 중 수험생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한편으론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수험생들 전반이 느끼시겠지만 사례형 문제는 모의시험과 본 시험을 가리지 않고 답안을 완성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민사법의 경우 총 14면의 지면을 채워야 하는 만큼 그 양 또한 방대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개설되는 사례연습과목 또는 자율적인 스터디를 통해 자신의 글쓰기 속도와 구조화의 경험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각자의 필기 유형에 부합하는 필기구를 미리 선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씨체의 굴곡이 급한 편이라 일정한 저항감이 있는 제트스트림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생리작용과 관련한 급변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식음료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시험시간이 2시간이 넘는 민사법 사례형과 기록형의 경우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면을 채우기에도 부족한 시험의 강도를 생각하면 이는 수험생에게 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기존까지 출제되었던 문제의 유형에서 다소 벗어나 과거 법과대학 학교시험 혹은 사법시험 유형의 문제가 상당한 배점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민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이나 형사법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유형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3) 기록형

개인적으로는 가장 당황한 영역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벌써 4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서면의 종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목에서 증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서면과 다른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그에 대해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사법에서 미리 예상했고 이미 출제도 되었던 검토의견서 작성 이 문제로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피고인 입장에서 사고하는 습관이 순간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곤혹스러웠습니다. 물론 저의 준비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수험생들께서는 앞으로 다양한 서면의 형식적인 기

재례를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면을 기재하는 입장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고를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Ⅲ. 공부방법

#### 1. 기본서

처음 법학을 접하는 비법학사 수험생들께서는 다종다양한 기본서들 중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의 미숙한 생각으로 내린 결론은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책은 어느 것도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선택하든 간에 그 책을 공부의 기본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반복입니다. 평범한 수험생들은 아마도 처음 기본서를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점차 반복해나가면서 각 과목의 체계를 어렵듯 하게나마 머릿속에 구조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지 난한 과정이지만 마지막 1년 동안의 효과적인 수험생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험 직전에는 요약서를 계속 압축하고 정리하여 양을 줄여나갔는데, 요약서의 특성 상 기본원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그 때 그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각 시험 유형 별 공부방법

##### (1) 선택형

향후 변호사시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현재의 제도가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 한 변호사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선택형의 중요도는 계속하여 상승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형 준비라고 해서 별도의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기본서의 정독과 뒤이어 설명 할 사례형과 기록형 유형에 대한 준비, 통상적인 판례공부를 통해서 수험생 대부분이

선택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이미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연적으로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 절대 다루어지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 대비하고, 객관식이라는 유형에서 다루어지는 특유의 지문들을 익히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시중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지문정리 학습서나 진도별 기출문제 정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2) 사례형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면, 각 학교 개별 교수님들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각 학교에 개설되는 사례연습 과목들을 우선 충실하게 수강하는 것이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수험생들이 사례형 문제를 푸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시간 부족을 느끼는데, 이러한 시간 부족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훈련과 실험들을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례연습 과목을 통해 시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법학 공부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반복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공부해야 할 내용을 방만하게 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별도의 학습 자료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자신의 교재와 수업 중 이용되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자신이 공부할 양을 압축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례형 준비를 전적으로 사례연습 수업에만 기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사례형 문제집 한 권을 선정하여 풀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 반드시 많은 종류의 문제집을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형의 사례를 암기하거나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어도 그에 대하여 대응 할 수 있는 이해의 체계를 머릿속에 구조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기본서와 그 기본서와 효과적으로 연동 될 수 있는 동저자의 사례형 문제집, 그리고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거

친다면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기록형

기록형에 대한 준비 또한 각 학교에서 운영되는 종합연습 과목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록형 문제의 특성으로서 요구되는 형식적인 기재례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가장 널리 읽히는 기록형 대비 문제집인 QT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록형에 대한 내용상의 대비는 이미 사례형 혹은 기본서 공부를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답안 작성의 형식적인 틀을 익히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변호사시험에서는 보다 다양한 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졌던 서면의 유형에 대해서도 충분한 훈련을 선행하고 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4) 후사법

후사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그 과목의 전체 체계를 우선 구조화하고 이를 반복한 뒤 요약서 등으로 단권화하여 반복하는 것이 공부방법의 정석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법을 익히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론을 마냥 강조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사법은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집(혹은 요약서)를 우선 한 권 선정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밑줄 등을 그으며 정리한 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기본서를 통해 다시 채워가며 반복하는 것이 수험방법으로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3학년에 진학 할 때까지 후사법의 기본 내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부족하였으나,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을 짧은 기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활용한 사례집과 요약서들은 압축에 압축을 거친 강사 저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해야 할 양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 IV. 마지막으로

처음 이 글을 시작하면서 밝혔던 바와 같이, 저의 수험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제가 지금껏 늘어놓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에 대해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아마도 가장 가까운 쥐구멍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의 집합과 약간의 행운으로 일천한 저는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제4회 변호사 시험에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 글을 읽게 되실 수험생들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대단치 않은 경험을 선행했다는 것과 앞으로 같은 분야에서 마주치게 될 동지들에 대한 염려와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저 한 명의 수험생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마음 졸이며 불안해했기에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그러한 시간과 더불어 우리를 지나칩니다. 못난 제가 버텼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여유로운 마음과 당당한 태도로 난관과 맞닥뜨려 극복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